

정례브리핑

2020.6.10(수)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과 내일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 국립현충원 묘역에서 진행되는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 중입니다.

내일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북한이 어제 연락 채널을 중단하면서 강경기조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자세가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9시에 혹시 통화시도를 하셨

는지 그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중 답변이 쉬운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어제 정오 북측과 통화시도를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돼 있고 그 이후 북측이 남북 통신선까지 차단했는데 먼저,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해 조기에 명백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북측의 문제 제기 이전에, 이전에도 미리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었는데 단순히 북측의 문제제기가 제기된 이후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는 외견적 선후 관계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은 정세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있다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전략적 자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통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북측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이 문제는 북측이 공식적으로 어제 정오부터 남북통신선을

차단하겠다고 했고, 우리 측 공동연락사무소가 어제 정오에 통화를 시도했고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북통신선 재개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매일매일 통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 일단 아까 정부 입장 다시 얘기해 주셨는데 북한이 지금 심한 말로 대남 비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따로 없나요?

<답변>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세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쭙보면 정부가 지금 판문점 견학 재개 추진 중이잖아요.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판문점 견학 재개 추진은 계속 되는 건가요?

<답변>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시점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래 추진하던 거에서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진전 상황을 봐서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했는데 대변인님께서서는 주로 그 배경에 전단 살포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배경에 전단 살포 말고 다른 어떤 이유는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측의 의도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 오늘 여당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